

2004년 한우산업 전망



장기선 부장
(사)전국한우협회

2004년도는 한우산업에 있어 사활을 건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우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 추세가 진정되었지만 지난해 한우사육두수 증가는 3만두에 불과해, 아직 한우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논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고품질 냉장육의 무차별적 공세가 2004년도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한우고기 선호 소비자들의 이탈을 어떻게 막아내는가에 따라 향후 한우 가격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2004년도 한우 가격은 한우두수의 급격한 증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질병 등 큰 돌발 변수가 없다면 2003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한우 사육두수는 1997년6월 2백92만7천두(육우 포함)를 최고점으로 해 IMF와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을 겪으면서 2000년말 1백59만두, 2001년말 140만6천두, 2002년말 1백41만두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2003년 말에는 1백44만두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농가 수 또한 2000년초 35만명에서 2003년말에는 18만명까지 줄어들었다.

2004년도의 경우 한우농가 수는 더욱 줄어드는 반면, 한우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우산업은 한우 가격이 좋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 수는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우산업이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한우고기 자급률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2003년말 한우고기 자급률은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우번식기반의 안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우산업 유지 발전에 대한 한우농가의 굳건한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우번식기반이 안정되고 적정 자급률 수준을 만들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한우농가의 감소를 막아낼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한우산업 총 매출은 2000년 연 3조원에서 2002년 연 2조5천억원, 2003년 2조3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우가격의 강세보다는 한우사육 적정두수 실현과 현 한우농가수의 유지가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한우농가가 2004년도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는 크게 ▲한우자조금의 실현 ▲한우브랜드 육성 및 정착 ▲한우번식기반 안정 등 한우산업정책의 재확립 등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에 따라 2004년도 사업목표를 「소비자와 함께 하는 한우산업, 「쇠고기시장의 유통 투명화 확립」으로 설정하고 향후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우자조금의 실시는 한우산업의 2004년도 최대의 과제이다.

한우자조금은 소비자에게 한우농가가 직접 다가가는 과정으로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수입 냉장육으로의 소비성향 이탈을 막아낼 수 있는 한우농가 스스로의 자구책이기 때문이다.

한우자조금을 통해 대대적인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펼쳐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수입쇠고기와의 확연한 품질차별화를 이뤄나가야 한우산업의 모습을 소비자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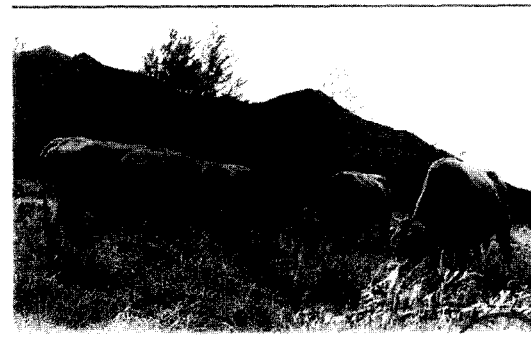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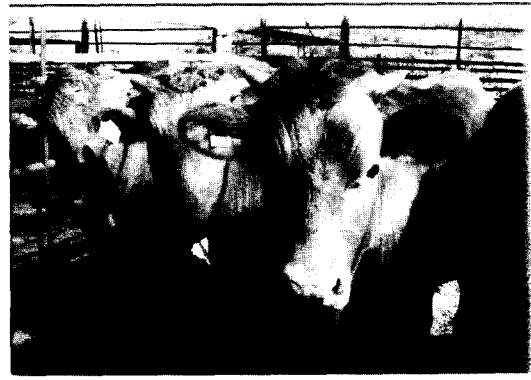
이에 더해 한우농가의 한우고기 고급화 노력과 브랜드화의 진전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통한 품질고급화와 일정 물량과 균

일한 품질의 한우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광역 브랜드화가 필수적이다.

구제역의 재발 방지 및 방역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도 한우산업의 유지·발전을 가름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한우고기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방역활동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수입생우 문제도 이제 단순한 한우농가의 막연



한 불안감 해소 차원이 아닌 해외 악성 질병의 유입 차단을 목표로 두고, 수입생우 관련 투쟁방안을 입식저지에서 유통 투명화 감시 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수입생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우농가의 이같은 자발적인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져가고 있다.

한·칠레 FTA타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진행 등 한우산업을 위협할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가격이 좋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책적 배려에서 한우산업을 소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의 보완대책 마련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한우브랜드 지원, 한우번식기반의 안정, 한우 자급률

목표설정 등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한우산업 정책의 마련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⑤



2004년에는 이런 소식만 듣고 싶다!

1. 한우자조금 실현...한우고기 우수성 홍보 시작
한우가의 숙원이었던 한우자조금이 실현돼 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실시중.

2. 수입생우 수익성 없다 판명...수입업자 수입 포기해
생우 수입업자들간에 수입생우가 질병 등의 문제와 함께 수익성이 없음을 직시하고 수입생우의 국내반입을 포기.

3. 한우고기 국내 자급률 50% 상회
한우의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해.

4. 한우고기 품질면에서 세계 제일로 국제적인

증받아

한우고기 품질을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명실상부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5. 한우 브랜드 정착단계에 돌입
국내 한우 브랜드가 생산, 유통 등의 단계가 제대로 정착돼 활기 상승중.

6. 한우협회 회원 2만명 돌파
한우생산자들이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

7.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마련에 적극성 띠어
한우번식기반 안정, 자급률 목표달성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있어.